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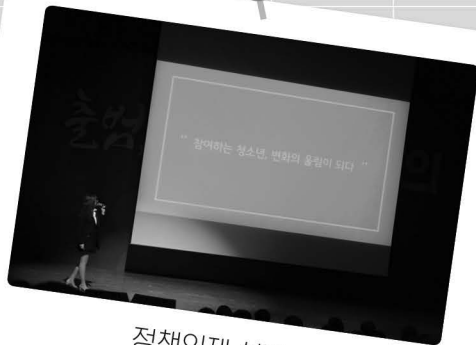
2018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사진으로 보는 2018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정책의제 선정



정책과제 체계화



공동체 활동



의제연구워크숍





정책과제 건의문 전달



정책과제 보고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를 함께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정에 힘쓰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일치하며, 지회는 2004년 사범사업으로 시작한 청소년 속의 민주주의 공동체 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정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와 청소년을 강조하시며 탄생한 청소년특별회의는 18년 현재 14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18년 현재 14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12년 UN 공동행정상 수상을 하며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12년 UN 공동행정상 수상을 하며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12년 UN 공동행정상 수상을 하며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14년간 청소년 성, 안전, 처벌 없는 교육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선거운권 연령 하향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상과 권한은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성 정책 반영률은 저조하며, 아직 우리 국민은 ‘청소년특별회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조하며, 아직 우리 국민은 창조경제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2004년 국가의 권복직인 지원 아태 출판물 평가를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판물, 청소년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우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속의 민주주의를 강조하시고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굴가는 아직 어리다고 하고 누굴가는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은 이미 준바된 사회의 일원입니다. 청소년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문제인 대동령에서 청소년 특별회의를 함께해주세요.

청와대에서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본회의를 함께 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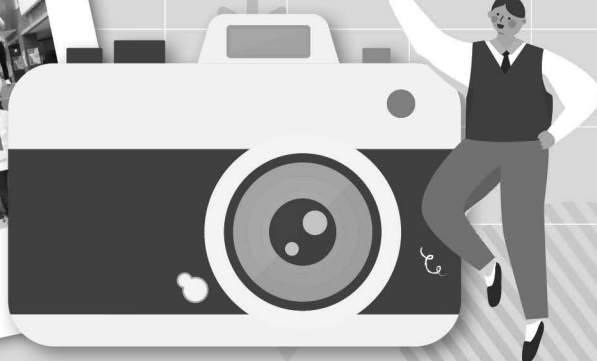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제 1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제 14회 정조연락회의
의장 김 지 ~~은~~ 부의장 김 다 연 ~~은~~ 부의장 진 민 석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청와대 영빈관 개최 추진



목 차

제 1 장

2018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03
- 2. 추진경과 04
- 3. 2018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05

제 2 장

2018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 1. 출범식 09
- 2. 지역회의 11
- 3. 의제연구워크숍 14
- 4. 예비회의 15
- 5. 본회의 17
- 6. 평가회의 19

제 3 장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 1. 개요 23
- 2. 세부내용 25
- 3. 소관부처 검토의견 36

붙임 자료

- 1. 2017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47
- 2. 정책과제 세부내용 및 이행현황 52

제1장

2018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개요

01

추진배경

- ◆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청소년을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 형성
- ◆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에 시범사업 이후 매년 개최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5. 12. 22)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분야 20개 과제 제안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6. 10. 27)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분야 37개 과제 제안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7. 11. 2)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분야 18개 과제 제안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8. 11. 21)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분야 35개 과제 제안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 12)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분야 20개 과제 제안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1. 26)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분야 53개 과제 제안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1. 11. 18)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분야 41개 과제 제안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2. 11. 23)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분야 89개 과제 제안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3. 11. 21)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4. 11. 21)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분야 31개 과제 제안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5. 11. 20)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6. 11. 24)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7. 11. 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제1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7. 11. 23)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02

추진경과

'18.03.06.	2018 청소년특별회의 기본계획 수립
'18.03.07.	담당자 회의 실시
'18.04.21.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구성
'18.04.30.	전문가 자문회의
'18.05.01.~05.07.	정책의제 영역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
'18.05.07.	정책의제 영역선정 '참여'
'18.05.11.~05.12.	출범식 : 정책의제 선정, 청소년위원 위촉 등 - 정책의제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
'18.05월~8월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활동
'18.07.13.~07.14.	의제연구워크숍 - 정책과제 체계화 및 지역별 분장 등
'18.08.20.~08.29.	정책과제 관련 온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18.09.14.~09.15.	예비회의 - 본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22개 세부정책과제)
'18.10월~11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18.11.23.	본회의
'18.12.14.	평가회의

03

2018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 구성

- 연령별

(명)

성별		9~15세 (초·중)	16~18세 (고)	19~24세 (대)	소계
남	여				
193	253	63	339	44	446

※ 8명 해촉, 최종 활동자 446명

-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앙	계
청소년	19	25	28	27	34	24	20	23	43	16	28	26	24	25	28	25	10	21	446
남	5	11	10	14	13	8	10	15	14	7	16	11	11	12	14	7	8	7	193
여	14	14	18	13	21	16	10	8	29	9	12	15	13	13	14	18	2	14	253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기구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 대상: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대표 3명(선출직)
- 역할: 청소년특별회의 주재 및 대표, 공약 추진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기참가자 중 공개선발 청소년 9명
- 역할: 주요 행사 기획 및 홍보,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전문가 자문단

- 대상: 청소년 정책 및 정책의제 관련 전문가 2명
- 역할: 정책과제 발굴 및 체계화 관련 자문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팀

- 대상: 18개 지역회의 청소년위원 39명
- 역할: 지역회의 정책과제 공유, 정책과제 분석 및 체계화, 예비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 논의

The background is white with various gray geometric shapes and patterns. There are several circles, some with diagonal stripes and others solid. There are also small triangles and asterisks scattered throughout. A large dark gray circle is in the center, containing the main text.

제2장

2018 청소년특별회의 주요활동

01

출범식

□ 개요

- 기간 : 2018. 5. 11.(금) ~ 12.(토)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참석인원 : 총 349명
 - 청소년 위원 296명, 청소년지도자 및 담당 공무원 20명
 - 전문가 자문단 2명, 서포터즈 9명
 -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12명, 시·도센터장 8명
- 주요내용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선언, 추진계획 보고
 - 청소년 위원 위촉장 및 의장단 임명장 수여
 - 지역회의 및 정책의제 선정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내용
1일차<5.11.(금)>		
등록	13:00~13:30	- 참가자 접수
사전교육	13:30~14:00	- 성희롱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생활안내
출범식	14:00~15:30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경과 보고 - 위촉장 및 의장단 임명장 수여 - 출범선언문 낭독 - 기념촬영
정책의제 안내	15:30~16:00	- 의장단 소개 및 공약 안내 - 영역 선정 안내 정책의제 선정 안내 - 전년도 모니터링 안내
지역회의	16:00~18:00	- 의제연구팀 선발 - 전년도 모니터링 과제 선정 - 지역별 의제 토의
	18:00~19:30	- 저녁식사
	19:30~20:30	- 세부 정책과제 토의
의제연구팀 회의	20:30~21:00	- 지역별 전년도 모니터링 분장 - 최종 정책의제 선정
2일차<5.12.(토)>		
공동체 활동	08:00~09:00	- 아침식사
	09:00~11:00	- 공동체 활동
폐회식	11:00~11:30	- 최종 정책의제 발표 - 평가
	11:30~12:30	- 점심식사 및 귀가

02

지역회의

□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 기간 : 2018. 5. ~ 8.
- 주요내용
 - 지역별 회의 및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 지역별 발굴 정책과제 목록

지역	제안과제
서울	청소년 모의선거 실시
	18세 선거 연령 하향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 피드백 강화
	청소년 할인 연령 통일
	청소년증 이용률 및 인지도 확대
부산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교육 의무화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업 실시
	대한민국 청소년위원회 부활
대구	청소년참정권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
	여가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확대
인천	국민참여재판 내 청소년 배심원 참여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특별회의 내실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예산제 활성화
광주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내 동등한 학생 인권

지역	제안과제
대전	청소년 정치 참여 기회 확대(온라인)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환경 개선
	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부당 노동행위 방지
	청소년 모의투표 활성화
	청소년 문화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
	청소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울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학생주도 교칙제정에 대한 정책 제안서
세종	온라인 청소년정책 청원 공간 확보
	청소년을 위한 예산 책정에 청소년 의견 반영
	후기청소년과 중기청소년의 연계
경기	청소년 참여 예산제 도입으로 청소년의 참여보장
	청소년의 사회참여 권리 보장 및 전문화된 인력 배치
강원	정치교육 확대
	시·도교육감 청소년 투표권 부여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참여 유도
	교내에서의 학생 참여증진
충북	학교폭력,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학교 내) 청소년 권리 증진
충남	청소년 관련 기구 명칭 통합하기
	나-홀로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젝트
	소수청소년을 위한 참여위원회 설치
전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선출
	교내 학생 참여예산제

지역	제안과제
전남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청소년 참여 예산제 활성화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증진
경북	청소년의 실생활 경제참여와 교육 강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확대 및 지원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회 확대
	모의기업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경남	청소년 참정권 부여
	교육제도 변화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제주	학교 밖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중앙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강화 방안
	청소년 참여 관련 홍보 확대
	체험활동 및 교육 소외지역 지원 방안

03

의제연구워크숍

□ 개요

- 기간 : 2018. 7. 13.(금) ~ 14.(토)
- 장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석인원 : 총 71명
 - 의장단 3명, 18개 지역회의별 의제연구팀 및 담당자 58명
 - 전문가 자문단 2명, 서포터즈 3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5명
- 주요내용
 - 각 지역회의에서 발굴·제안한 정책과제 공유 및 분야별 분류
 - 정책과제 체계화(3개 분야, 17개 중과제) 및 지역별 분장

□ 추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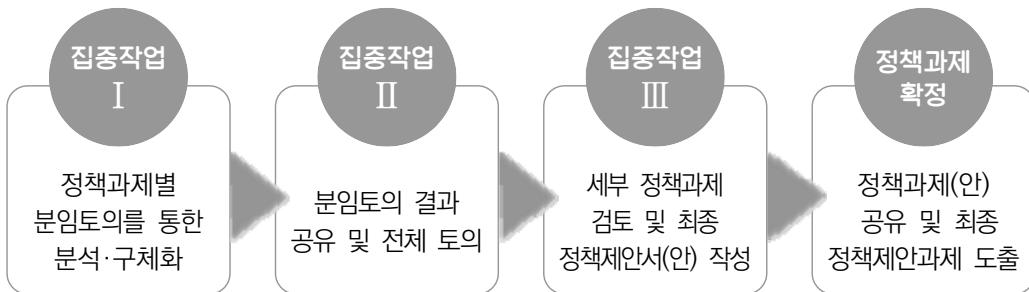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안)

분야	정책과제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정권 확대 -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참여 확대 -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강화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 청소년 참여증진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확대

04 예비회의

□ 개요

- 기간 : 2018. 9. 14.(금) ~ 15.(토)
-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참석인원 : 총 90명
 - 의장단 3명, 18개 지역회의별 의제연구팀 및 담당자 71명
 - 전문가 자문단 2명, 서포터즈 8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6명
- 주요내용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집중작업 및 최종 정책과제 도출



□ 추진결과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도출(3개 분야 22개 세부정책과제)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영역	정책과제
정치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정권 확대 -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기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제도 강화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참여 확대 -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강화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증진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확대

□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내용
1일차 < 9. 14.(금) >		
활동 및 행사안내	13:30-14:00	- 등록
	14:00-14:30	- 시설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회식	14:30-15:00	- 여는마당 - 개회사 - 2018년 추진경과 보고 발표 - 청소년특별회의 영상 상영 - 플러스 친구 및 이벤트 안내
공유 · 토의	15:00-15:10	- 휴식
	15:10-17:30	- 의제연구 집중작업 I
	17:30-19:00	- 저녁식사
	19:00-21:00	- 의제연구 집중작업 II
2일차 < 9. 15.(토) >		
확정 및 폐회식	08:00-09:30	- 아침식사 및 집결
	09:30-11:30	- 최종 정책과제 도출
	11:30-11:50	- 폐회식
	11:50-13:00	- 점심식사 및 귀가

05

본회의

□ 개요

- 기간 : 2018. 11. 23.(금)
- 장소 : 더케이호텔 서울
- 참석인원 : 총 284명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24명
 - 청소년지도자 및 담당 공무원, 전문가 자문단, 일반청소년 등 45명
 -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등 15명

※ 주요내빈: 여성가족부장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시·도 센터장 등

• 주요내용

- 2017년 정책과제 이행현황 보고
- 2018년 정책과제 보고

※ 정책의제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올림이 되다' 3개 분야 22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분 야	정책 과제	과제 수	수용		불수용
			수용	부분 수용	
계		22	13	7	2
정치참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	3	-	2	1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4	4	-	-
기반강화	청소년 참여제도 강화	2	1	1	-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5	2	3	-
교육·홍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증진 프로그램 강화	5	3	1	1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확대	3	3	-	-

- 2018년 우수 지역회의 시상

□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부내용
식전행사	14:00-14:50	- 참가자 등록
	14:50-15:00	- 성평등교육 및 안전교육
본행사	15: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빈 입장 및 국민의례 - 내빈 및 권역별 소개 - 2018년 청소년특별회의 경과보고 - 개회사 - 2017년 정책과제 이행현황 발표 - 2018년 정책과제 보고 및 건의문 전달 - 축사 - 희망나무 낭독·전달 - 2018년 우수 지역회의 시상 - 기념촬영
부대행사	16:00-16:10	- 휴식
	16:10-17:00	- 부대행사(쇼! 청특중심) 및 폐회



06

평가회의

□ 개요

- 일자 : 2018. 12. 14.(금)
- 장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석인원 : 총 39명
 -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및 청소년위원 21명
 - 17개 시·도 청소년특별회의 담당자 12명
 - 전문가 자문단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6명
- 주요내용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
 - 2019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안 논의

□ 진행 일정표

시간	세부내용	
11:30 - 13:00	- 점심식사 및 등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연간 활동 보고	
	- 분임토의 1 (담당자)	- 분임토의 2 (청소년위원)
13:00 - 15:00	- 2018 청소년특별회의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공유	- 2018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활동 평가 공유
	- 전반적 사업운영 평가	- 청소년추진기구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제언
	- 2019 청소년특별회의 발전 방안 모색	- 각 지역회의 활동평가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15:00 - 15:30	- 토의 결과 공유 및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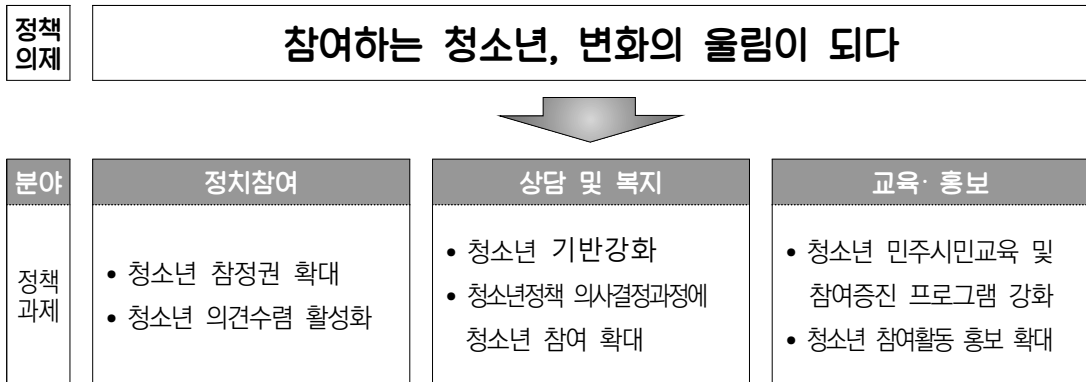
제3장

2018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01 개요

□ 정책과제 체계 : 총 3개 분야, 22개 세부정책과제



□ 정책과제 수용여부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여부
1. 정치참여	1-1. 청소년 참정권 확대		
	1-1-1.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부분수용
	1-1-2. 청소년 모의투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 모의투표 사전교육 시행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부분수용
	• 청소년 모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불수용
	1-2.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1-2-1.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 생활밀착형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여성가족부	수용
	• 청소년 주장대회 활성화		
	1-2-2. 청소년 참여포털 의견수렴 기능 강화		
	• 청소년 참여포털 개편	여성가족부	수용
	• 청소년 참여포털 홍보 확대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여부
2. 기반강화	2-1. 청소년 참여제도 강화		
	2-1-1. 청소년참여기구 기능 강화		
	•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수용
	2-1-2.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교육부	부분수용
	2-2.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2-2-1.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 참여 확대		
	•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부부처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 청소년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 청소년 참여 보장	여성가족부	수용
	•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부분수용
	2-2-2.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및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 「학교참여예산제」(가칭) 도입	교육부	부분수용
3. 교육·홍보	3-1.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증진 프로그램 강화		
	3-1-1.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화	여성가족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통일부	수용
	•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교육부	부분수용
	3-1-2. 부문별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 문화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 청소년 사법 참여기회 확대	법무부	불수용
	•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3-2.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확대		
	3-2-1. 대상별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강화		
	• 청소년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여성가족부	수용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여성가족부	수용

02

세부내용

1

정치참여

1-1. 청소년 참정권 확대

1-1-1.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제안배경

- 선거권 확대의 필요성 대두
 - OECD국가들의 선거연령을 비교할 때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타국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주고 있음. 이는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이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대보다 높은 10대 투표율
 - 2018 청소년 통계(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 19세 투표율은 77.7%로 20대 전반(77.1%), 20대 후반(74.9%) 투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 18세 선거권 제한에 대한 당위성 부족
 - 병역법 상 병역의무 부과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가능 연령, 근로기준법 상 유해사업 가능 연령, 보호자 동의 없는 혼인 가능 연령은 모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음.
 - 위 법령들에 따르면 만 18세에게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정책과제

-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만 18세 하향
 - 해당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시, 선거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

1-1-2. 청소년 모의투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배경

- 2018년 청소년 통계(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2018)를 보면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015년에는 82.8%, 2016년에는 83.8%, 2017년 87.6%로 증가보임.
- 최근 YMCA의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영본부’에서 진행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모의투표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은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신중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한겨레 2017.5.17., 오마이뉴스 2018.6.12.)
- 독일, 스웨덴, 코스타리카 등 수많은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를 진행. 독일의 경우 U-18 모의선거를 통해 청소년들은 연방총선, 주 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시, 실제 선거일 1주 전에 모의투표를 진행. 학교에서는 모의선거 전, 후보자들의 공약집과 토론회 등을 다뤄 교육을 진행하며 선거 과정은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 이는 독일 사회의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함.

정책과제

- **청소년 모의투표 사전교육 시행**
 - 청소년들에게 선거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이전 후보자 토론회 방송 등을 활용한 사전교육 자료 제작
 -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
- **청소년 모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가자문단을 포함한 청소년 위주의 구성원 조직 및 운영
 - 모의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참관인, 선거개표지원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활동에 준함
 - 청소년 모의선거위원회에서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투표 참여 유도

1-2.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1-2-1.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제안배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청소년 사회참여 관심도 및 필요성이 2013년 80.1%에서 2017년 87.6%로 증가함. 하지만, 이에 비해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켜야 함을 목표로 천명하였음.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제안게시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희망소리'는 온라인 청소년 정책 제안 시스템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손쉬운 의견 표출을 위해 인터넷을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개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정책과제

- **생활밀착형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의견수렴함을 설치·운영
 - 각 지자체 청소년참여기구가 취합하여 정책제안 활동에 반영
 - 취합된 의견은 지자체 및 청소년 유관기관(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홈페이지에 게시
- **청소년 주장대회 활성화**
 - 각 지자체 청소년 주장대회 활성화
 - 청소년 주장대회 우수사례 발굴 후 지자체, 청소년 유관기관 등에 확산
 - 청소년 주장대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각 지자체 등에서 검토

1-2-2. 청소년 참여포탈 의견수렴 기능 강화

제안과제

- **청소년 참여포탈 개편**
 - 청소년 참여포탈 및 제안게시판 기능 강화
 - 각 지역별 의견수렴 창구 및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공간 등을 개설하여 전국 단위 현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청소년 참여포탈 홍보 확대**
 - SNS(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블로그 포스트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홍보
 -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홈페이지 등에 배너를 달아 접근성 증대

2

기반강화

2-1. 청소년 참여제도 강화

2-1-1. 청소년참여기구 기능 강화

제안과제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여기구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나 청소년들은 지자체로부터 정책 반영 여부 및 보완점에 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책 제안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해당 참여기구의 능률과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참여기구 담당자의 역량은 곧 해당 참여기구의 중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참여기구의 기능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지도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및 역량 강화**
 - 청소년참여기구가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 피드백 강화
 - 각 정부부처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계획·추진 시,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부처와의 소통강화
 -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 및 참여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2-1-2. 학교 내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

제안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수렴 등)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 시 학생 대표의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이외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부족함. 이에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정책과제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학생위원 구성원¹⁾ 및 구성비율²⁾ 보장
 - 학생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학생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이외에도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 학생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도 참여 가능함.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결과를 교내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게시하는 등 활동 내용 공개 강화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2-2.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2-2-1.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 참여 확대

제안배경

- 청소년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전반의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현재의 참여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의 정책 제안에 제한되어있음. 다양한 분야의 정책 영역들이 청소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정책 결정 및 시행 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었던 시민주권, 마을 민주주의가 정책적으로 논의 중. 이에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주장하여 청소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을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정책과제

-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부부처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여 확대**
 -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부부처 청소년 관련 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위원 포함
- **청소년 관련 법령 재개정 과정 청소년 참여 보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 관련 법령 재개정 시 청소년 의견수렴 실시
 - 입법예고 시 청소년 참여포털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이 지역 단위 참여예산을 통하여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개정 및 청소년 정책 관련 공청회, 정책과제 설정 공청회 등 개최 시 청소년 참여 적극 추진
 -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비례대표제 도입

2-2-2.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제안배경

-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참여예산제는 2016년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임.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아 청소년의 예산결정권 부재 및 청소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나아가 제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도 발생 (아산시)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약 6,000명 중 3%의 학생들만이 알고 있는 상황임.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속해있는 기관인 학교에 도입하여 학생의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정책과제

-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및 홍보 강화**
 -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참여예산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강사 인프라 확대
 - 청소년참여예산 온라인 사이트 개설
 - 교내·외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캠페인 홍보 활동
- **(가칭)「학교참여예산제」도입**
 - 학교참여예산제 전담교사 배치를 통하여 활동 지원 및 점검 실시
 - 학생의견 반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3

교육홍보

3-1.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증진 프로그램 강화

3-1-1.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제안배경

- 2018 청소년 통계(통계청 및 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청소년 중 87.6%가 “청소년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을 만큼 청소년의 정치참여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치참여 관련 교육이 미비한 실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2018년 경기도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민주시민교육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남.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기 운영 중이지만, 교육과정상의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지금까지 여러 차례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이 제안 및 수용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앞선 언급과 같이 정책 시행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한 편임.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은 다른 역량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교육과정의 보강 및 확대 필요성을 알 수 있음.

정책과제

•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화

-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 민주시민캠프, 토론회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상 선거교육 확대 (연방 정치교육원 운영한 독일 사례 참고)
-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강화

•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 민주시민교육 수업 시수 보장(창의적 체험시간 등 활용, 다른 과목 수업 보충 제한)
- 일방향적 이론수업 지양, 시청각 자료 및 체험형 수업(연극, 참여골든벨 등의 흥미로운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교육
- 시민의식, 민주주의, 선거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 고취

3-1-2. 부문별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제안배경

• 청소년 문화 참여 활성화 필요

- 청소년의 여가활동 등 문화 참여는 정체성 발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Kelly & Freysinger, 2004), 현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매우 부족하며 이마저도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 정적인 활동에 편중되어있음.³⁾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진흥 및 참여의 일환으로 청소년증 복합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음.
- 수학여행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동우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여행' 중 여가활동과 주도적 체험활동 요인이 청소년 심리적 행복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청소년 사법 참여 미흡

- 현재 청소년의 사법 참여를 위해 마련된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인단 제도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유사하나, 해당 지역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⁴⁾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법 준수 및 참여적 동기를 크게 증진 시키고 인지적 법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여 그 의의가 큼.
- 그러나 본디 국민참여재판은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나, 해당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인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다는 점, 해당 제도가 사법참여보다는 참관을 통해 준법의식 고취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 한계가 있음.

• 취약계층 참여 기반 조성 필요

- 현재 청소년참여기구 위원 구성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 10~20% 내외의 취약계층 청소년 할당이 존재하는 등 취약계층 참여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상당 부분 제대로 해당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가 부족함.

3) 통계청 하루 평균 여가시간, 2016,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 2018

4) 김지선 외 3명,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

정책과제**• 청소년 문화 참여기회 확대**

- 청소년 문화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증 활성화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수요처 개발
- 청소년 역사체험, 여행 등 청소년 자기주도형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청소년 사법 참여기회 확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6조(배심원의 자격)⁵⁾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 참여 배심원 자격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인단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참여인단 선출 시 학교장 추천 이외에도 지방 및 가정법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신청 등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기관과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참여 장려 및 기회 확대

5)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3-2.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 확대

3-2-1. 대상별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강화

제안배경

- **청소년들의 권리주장이 강해지는 추세, 사회 참여 증가**
 - 최근 청소년참여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UN, UNESC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우수한 역량을 가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강조(이민희 외, 2005)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홍보 부족**
 - 전국 청소년 6,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특별회의를 모른다는 응답 5,167명으로 79%,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모른다는 응답 4,885명으로 74.7%로 나타남(최창욱, 전명기 2013)

정책과제

- **청소년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 전국 학교 학생회와 연계하여 정기적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안내
 - 청소년참여기구 홍보자료(자료집 등) 배포
 - SNS 홍보(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등)
 - ‘세계 청소년의 날(8.12.)’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캠페인 실시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 종사자를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자료 배포,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 실시
 - 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진행
 -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연수 실시
-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확대**
 - 청소년참여기구 성과 홍보집 제작 및 배포
 - 청소년참여기구 성과 홍보 공모전 개최

03

소관부처 검토의견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부분수용/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위원회는 보통선거의 원칙상 국민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고려하되 가급적 국민 다수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높은 교육수준, 정보습득 방법의 다양화 및 보편화 등으로 인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검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2016.8.25.)한 바 있으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국회는 2017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상반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향후 가동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안 논의 시 적극적으로 입법지원할 예정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모의투표 사전교육 시행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생 대상 맞춤형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연수 희망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초등학생 : 사회교과 연계, 중학생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고등학생 : 새내기유권자 또한, 초·중등학교 임원선거 등과 연계한 토론 체험 관련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사전 교육자료 포함)을 운영 중임. 다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면 법적 제도와 예산 추가 확보 등 필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모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2. 청소년 모의투표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공직선거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모의투표를 포함함)의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제108조제1항 및 선거에 관해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유로운 청소년 모의투표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및 구성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은 가능함.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 청소년 주장대회 활성화 	여성가족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의견수렴 창구 운영, 주장대회 등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견수렴함을 설치·운영 하는 내용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19년 청소년사업안내에 반영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구가 이를 정책제안에 활용하고, 주요의견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내용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나누는 청소년 원탁회의·주장대회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19년 청소년사업안내에 반영하겠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에서 청소년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을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기 안내('18년) -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확산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털 등 온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통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포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내 자유게시판, 제안게시판 등을 통해 지역별 청소년 의견수렴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이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게시판 신설은 예산 소요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또한, 지역별 청소년참여기구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털 홍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털 지속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포털 등 청소년 참여활동 홍보물을 온·오프라인으로 제작·배포('18.12월)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월 참여포털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배포(e-청소년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 홈페이지 배너 설치에 대한 권한은 해당 기관에 있으므로 청소년이 많이 활용하는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링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양한 기관과 청소년이 참여포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및 역량 강화 • 청소년참여기구 권한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구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에 대하여 피드백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도록 기 권고('18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p>*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신설조항('17.12.12. 개정, '18.6.13.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청소년참여기구를 인지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활동 지도자 대상 워크숍, 참여기구 청소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음. <p>* ('18년) 지도자 대상 워크숍(4월·11월),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청소년 워크숍(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청소년참여활동 가이드북,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활동 관련 우수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여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교육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보장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학생·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출석·발언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학생위원 자격으로의 참여에 대하여는 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는 교내 법적 자치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생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천,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등)이 있는 반면, ② 학생 의견은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통해 학교에 전달 가능하고, 미성년의 피교육자인 학생에게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에 학부모, 교사, 지역대표 등과 함께 표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학생 발달 단계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부산, 제주 교육청 등)도 있음.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제안권 및 소위원회 참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소위원회에는 학생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시 각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사항을 홍보·안내할 계획임.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주요결과 공개 강화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시 각 학교의 회의록 미공개 횟수 등을 조사하고, 관련 사항을 홍보·안내할 계획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정부부처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여 확대 •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위원회는「청소년 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움. 다만,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음.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대표발의, '18.9.27.)」으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발의되어 있음. 우리부는 수용 의견으로 검토할 계획임. - 아울러, 정부부처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 청소년 참여 보장 •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령(국가)과 조례(지자체) 등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보장되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 또한,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법령 등 제·개정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과정 청소년 참여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예산 편성과정, 조례 제·개정 과정, 청소년 관련 공청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19년 청소년사업안내에 반영하겠음('18년 청소년사업안내에 일부 반영되어있음). *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결정할 사안으로, 청소년 참여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및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참여활동 가이드북(참여예산제 내용 포함) 제작·배포 등을 통해 공무원·지도자들이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18년 상반기에 배포하였으며, 참여포탈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함. 청소년참여예산 논의를 위한 온라인 채널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전 등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19년 청소년사업안내에 반영하겠음('18년 청소년사업안내에 일부 반영되어있음).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참여예산제」(가칭) 도입 	교육부 (부분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예산편성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 적극 지원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교사 또는 행정실 등 담당자가 다르며, 전담교사 지정을 강제할 경우 학교현장의 반발이 우려됨.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화 	여성가족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시설 등에서 민주시민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는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활성화 지속 지원 * '민주시민 프로그램('18년 3개, 신규) 및 '청소년참여 프로그램('17년 50개→'18년 75개) 지원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유, 영향력 행사 등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구 운영·지원 * 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운영위원회, 꿈드림 청소년단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 등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선거교육을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생 대상 맞춤형 미래유권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연수 희망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초등학생 : 사회교과 연계, 중학생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고등학생 : 새내기유권자 - 학교, 단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 중이며, 향후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 강화 예정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학생회 민주적 절차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탈북청소년에게 직접 민주주의 경험 - 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 학생회 구성 및 학생회의를 민주 절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자율 능력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소양과 역량을 신장 * △학생회 구성(자치선거, 대표선출, 의견제시, 자유 토론과 경청), △학생회의 운영(의장(학생회장), 임원단(반장), 서기(학생부회장) 등이 자율적) * 금년 하반기 준비 과정을 거쳐 4개교(특성화학교 1개, 대안학교 3개)에 '19학년 1학기부터 전면 실시 • 탈북청소년 학교 교육활동에 “민주시민” 과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법률, 금융 등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소양교육 강화 - 하나원(하나둘학교) 및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에서 재정지원(국고보조)하는 탈북청소년 학교*의 교과목에 2019년부터 “민주시민” 과정 자율 운영 * △통일부: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남북하나재단: 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학교 	통일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 민주시민교육 수업 시수 보장(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수 확보는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함. - 현재 교육부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기존 교과에서의 내용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중이며, 창의적 체험시간 활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시수 보장은 법령이나 부처 등의 요구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하는 학습 시수가 이미 과도하여 어려움. * 창체 의무편성· 운영시간 : 초 272시간, 중 170시간, 고 170시간 • 학교 민주시민교육 내실화(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자료 및 체험형 수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의식 고취 	교육부 (부분수용)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이용 활성화를 위해 SNS 등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 활동 수요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체험, 공연, 경연, 놀이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문화예술 놀이체험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연 11회, 시·군·구 연 6회 운영 중임 -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 동아리활동 지원(2,500개)을 통해 청소년 주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역사체험, 여행 등 청소년 자기주도형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포함, 시행·추진 중임(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 제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실적 제출 - 수요자 맞춤형 걷기여행 프로그램* 등 자기주도형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기반시설에서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멘토를 활용한 걷기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고 있음(5개 프로그램)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법 참여기회 확대 	법무부 (불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 법령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임. - 따라서, 배심원의 구성 및 자격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는 피고인의 방어권 등 측면에서 신중검토 필요 - 참고로, 현행 「민법」 상 성년 및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은 모두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배심원 자격 연령의 하향 문제는 관련 제도와의 균형 및 형사절차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법 참여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은 학생들에게 	

연번	검토의견	소관부처 (수용여부)
	<p>간접적으로 사법활동을 경험케 하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현재 법원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법정과 같이 실제 사법행위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p>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 참여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구 구성 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18년 청소년사업안내)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시 취약계층 청소년을 일정 비율(10% 이상) 반드시 구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홍보 및 협조 요청 	여성가족부 (수용)
2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 청소년 대상 참여기구 홍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연계 등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활용도가 높은 SNS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하겠음. * ('18년 홍보현황) 인포그래픽 배포(3월, 교육청·지자체 등), 카드뉴스(7~8월), 청소년특별회의 SNS(페이스북,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계정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 배포(7월·12월) 등 - 세계 청소년의 날(8.12.) 계기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실시할 계획임('19년)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참여기구 홍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및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음. * 각급학교 공문 발송, 정례반상회를 통한 홍보, 연수 시 리플렛 배포 등 * (교육부 검토의견) 교사 대상 청소년참여활동 연수 개설 시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여 참여 독려 등 적극 지원 가능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홍보 •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 우수사례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사례 확산을 위한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있음. - 청소년참여기구 성과를 지속 발굴하여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여성가족부 (수용)



불임자료

01

2017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추진현황 모니터링

1

정책과제 개요

□ 정책의제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2017.3.31.~4.1.)에서 청소년위원의 투표로 선정

□ 정책과제 발굴 결과 : 총 30개 과제 중 24개 과제 수용

분야	정책과제	계	수용		불수용
			수용	부분수용	
계		30	12	12	6
체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5	2	2	1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2	-	2	-
상담 및 복지	진로멘토링 활성화	4	3	1	-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5	4	1	-
교육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6	2	3	1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4	-	1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4	1	2	1

2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개요

□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과정

'17.1월	제13회 청소년특별회의 기본계획 수립
'17.2.27.	정책의제 영역선정'진로'
'17.3.31.~4.1.	출범식: 정책의제 선정, 의장단 선출 등 - 정책의제:'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17.4월~8월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활동
'17.6.9.~10.	의제연구워크숍(1차) - 지역별 발굴 정책과제 공유 및 분야 구분
'17.8.11.~12.	의제연구워크숍(2차) - 정책과제 체계화 및 심층 분석
'17.9.8 ~ 9.9.	예비회의 - 본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 도출
'17.10월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17.11.17.~18.	본회의: 30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18.5월	정책과제 모니터링 지역별 분담
'18.6월	정책과제 모니터링 소관부처 협조 요청
'18.5월~7월	지역별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자료 조사(1차)
'18.8월~9월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자료 조사(2차)
'18.10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료 조사(3차)

□ 모니터링 결과 : 총 24개 과제 중 23개 과제 이행(95.8%)

분 야	정책과제	계	이 행		미이행	불수용
			이행	부분 이행		
계		30	10	13	1	6
체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5	2	2	-	1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2	-	2	-	-
상담 및 복지	진로멘토링 활성화	4	-	4	-	-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5	4	1	-	-
교육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6	3	2	-	1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4	-	1	-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4	1	1	1	1

□ 이행현황 및 지역별 분장표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여부	이행여부
1. 체험	1-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1-1-1.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이행 (경북)
	•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교육부	수용	부분이행 (경북)
	•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대전)
	1-1-2.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불수용	-
	•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여성가족부 교육부	부분수용	이행 (대구)
	1-2.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1-2-1. VOME 프로젝트 추진			
	•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전북)
	• 청소년 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경기)
	2-1. 진로멘토링 활성화			
	2-1-1. 진로멘토링 인력풀 구축			
2. 상담 및 복지	•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교육부	수용	부분이행 (강원)
	•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교육부	수용	부분이행 (강원)
	2-1-2. 온라인 멘토링 강화			
	•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수용	부분이행 (부산)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부산)
	2-2.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충남)
	•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여성가족부	수용	부분이행 (충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수용	이행 (인천)

2-2-2.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통일부	부분수용	이행 (광주)	
	교육부			
	여성가족부			
•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교육부	수용	이행 (전남)	
3-1.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3-1-1.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교육부	수용	이행 (중앙)	
•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부	부분수용	이행 (중앙)	
3-1-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	교육부	수용	부분이행 (경남)	
•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부분수용	이행 (제주)	
	행정안전부			
3-1-3.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교육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세종)	
•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 시간 확대 및 전문교사 배치	교육부	불수용	-	
3-2.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3-2-1.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 진로진학 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세종)	
•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 운영	교육부	불수용	-	
3-2-2. 진로 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교육부	불수용	-	
•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교육부	불수용	-	
3-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3-3-1.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교육부	수용	이행 (울산)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불수용	-	
3-3-2.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고용노동부	부분수용	부분이행 (충북)	
	교육부			
•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교육부	부분수용	미이행 (서울)	

02

정책과제 세부내용 및 이행현황

1

체험

1-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 확대 및 지원 강화

1-1-1. 진로체험활동 기회 확대

제안배경

- 단순 심리검사 분석이나 몇 차례의 상담, 현 세대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정보제공은 진로 설정에 부수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진로선택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는 어려움
-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향의 실질적 접근 요구

정책과제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공공기관, 시설, 단체의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청소년기관, 이용시설의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 진로체험지원센터 대상 확대 및 활성화
-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 공공기관·기업체 연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취업 및 창업, 인턴십 전담기구 설치 및 홍보 활성화(SNS)
 - 일학습병행 지원에 대한 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모니터링과제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행>**
 - 2018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라는 과제로 포함되어 교육부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 확산되고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사도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진로체험활동을 개발 및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관련 기사: 파이낸셜 뉴스(2018.6.11.)〉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국 최초 '고교-기관 연계 진로체험과정' 운영 본문들기 · 설정

기사입력 2018.03.21 오전 10:10

댓글

요약본

가

닫

【광주=합태중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공공기관 연계 진로진학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시청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연계 일반고 진로진학 체험프로그램인 '드림러너'를 개설하고 최근 신청 안내 공문을 관내 전체 고등학교에 전달했다.

'드림러너'는 참여 학생들이 관심있는 기관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이다. 각 기관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위해 기존의 일회성 견학 형태가 아닌 연속된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특기·적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청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현장을 체험하며 스스로의 진로와 진학 방향을 구체화하게 된다.

'드림러너'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비롯한 '수시모집 대비' 진학 과정으로, 참가 학생은 체험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기록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올해 '드림러너' 운영기간 4월부터 12월까지다. 시청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한다.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수의사·사육사 탐방 교실' △광주문화재단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아트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광주시 지역공동체추진단 '공무원 진로체험 더하기 소풍' △광주시 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체험 프로그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나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등이 다.

또 △광주환경공단 '하이! 환경 체험교육'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원 직업 체험' △전통자 정비 기관사 체험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꿈꾸는 미디어 청소년방송 체험' △국립 광주박물관 '1318 박물관을 클릭하다' △박물관 큐레이터 △호남지방통계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 통계데이터 체험' 등도 개설됐다.

시교육청은 이후 추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형태 장학관은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전국 최초로 고교-공공기관 연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인 '드림러너' 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진로체험 터전 체계적 관리 강화 〈교육부, 부분이행〉

- 2018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 등 진로 활동 확대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진로체험 터전(진로체험지원센터) 체계적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 다만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꿈길, 커리어 넷 등을 통한 진로체험 터전 관리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온라인 조사(뉴스 기사, 모집 공고 등)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분이행으로 판단됨.

- 청소년 취업, 창업 및 인턴십 관련 실질적인 기반 확대

- <고용노동부, 부분이행>

- 고용노동부는 재학생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등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청년(만15~34세 이하)에 대한 일경험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관을 대학일자리센터로 통합하여 지속 확대할 예정임.

※ ('15) 21개소 → ('16) 41개소 → ('17) 71개소(대형61+소형10) → ('18) 101개소(대형61+소형40)

-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유선면담 결과 SNS 등의 홍보는 각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중임.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었음('17.9.19.). 현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18.9.11.)에 상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1-1-2. 온라인 진로체험활동 기반 구축

정책과제

- **교내 진로 교육의 효과성 미비**
 - 전교생을 담당하는 진로교사, 업무과다로 인해 불가피한 진로교육의 질적 결핍
※ 진로교사 1인당 학생 수 약 454.2명(2017년 중학교 기준, 고등학교 744.8명)
- **사설 진로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유료 결제 유도, 불필요한 광고 노출 및 현 공식 진로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질적 결핍, 효용성 미비**
- **양질의 진로체험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이동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이용에 따른 경비와 체험비 등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 다양한 진로체험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정책과제

-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 개인 맞춤형 진로 수행 프로그램 제공
 - 교내 진로 수업 활용 자료 공급 또는 사용 의무화
 - 청소년 홍보단, 관리단 운영(어플리케이션 문제점 분석 및 홍보)
-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문화복합공간 등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가상현실(VR) 진로체험공간 설치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수요에 일치하는 직업체험 VR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결과

- **청소년 진로 설계 어플리케이션 “DiDi”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불수용>**
- **진로체험 가상현실(VR) 프로그램 개발 및 터전 설치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행>**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유선면담 결과, 가상 진로체험 콘텐츠 2종 개발 및 전국 17개 중·고교 대상 시범운영이 2017년 12월 완료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가상 진로체험 콘텐츠 신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추후 기존 및 신규 개발 자료를 금년 중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과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에 공개할 예정임.
 - 또한 스타트업 캠퍼스(경기 성남)에 일부 공간을 초·중고 학생 전용 교육공간으로 구축하여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 내에 VR존을 구축함.

1-2. 교외 자율동아리 진로탐색 기능강화

1-2-1. VOME(봄, VISION+COME) 프로젝트 추진

제안배경

-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로 예체능 위주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문 사회, 자연계열 등의 학습 및 활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화의 집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66.7%, 동아리 활동 경험은 88.4%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예체능 동아리 활동으로 나타남 (청소년특별회의 전북지역회의 설문 자료)
- ‘봄’과 관련한 참가 의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70%의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청소년특별회의 전북지역회의 설문 자료)

정책과제

-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 청소년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한 ‘VOME’운영위원회 설립 (각 시·도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활동)
 - 기획부, 홍보부, 모니터링 단으로 구성: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계획
 - ‘VOME’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청소년 시설에서는 프로젝트 담당 전문 교사(교육전문가)를 따로 지정
- **청소년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 청소년박람회에 ‘봄’ 박람회를 접목시켜 부스를 운영하고 ‘봄’ 동아리 별도 시상
 - 청소년문화의집 사이트와 ‘VOME’ 페이지를 통합하여 지역별 또는 비슷한 동아리들의 교류 확대

모니터링결과

- **VOME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지원**
- **청소년박람회, 동아리와 VOME 프로젝트 연계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유선면담 결과, VOME 프로젝트 추진단과 유사한 청소년조직이 기 구성되어있어 새로운 구성은 어려우나, VOME 프로젝트 제안 목적인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음.
 -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중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제고를 위해 동아리 유형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동아리 지원 권장(IT·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로봇 동아리 등)”이 신설되었음.
 - 이는 정책제안 목적에 상당부분 부합하므로 부분이행으로 판단됨. 다만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 영역별 신규로 지원된 동아리 현황 파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2-1. 진로멘토링 활성화

2-1-1. 진로멘토링 인력풀 구축

제안배경

- **진로멘토단의 일관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과 일부지역 편중**
 - 제주에는 '아라멘토단', 성남시에는 '성남시 진로멘토단', 서울에서는 '대학생멘토단'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주최하는 기관이 각자 다르며 운영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존재함
 - 지역별 진로멘토단의 존재 유무에 따라 진로 정보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로 서비스의 불평등을 야기함
- **진로멘토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관심도**
 - 진로멘토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음

정책과제

-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 현재 진로멘토단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는 진로멘토단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함
 - 진로멘토단에 대한 기준, 운영방식 등을 새롭게 구축하여 통일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를 멘토로 선출하여 진로멘토링 인력 확충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직업 종사자를 직업멘토 선출 권고

모니터링결과

- **지역별 진로멘토단 구성 및 운영확대**
- **다양한 직업멘토 인력풀 확보 <교육부, 부분이행>**
 - 교육부 및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주관으로 현직 직업인, 학부모, 퇴직(은퇴)자, 대학생 등 교내외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진로멘토풀(좋은어른, 진로사람책)을 구축하여 지원 중임.
 - * 좋은어른 :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주1~2회 규칙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인력
 - * 진로사람책 : 인력풀(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연간 1회 이상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 멘토링, 특강 및 상담 등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기부 인력

- 또한 교육부는 진로상담 인프라가 열악한 학교에 온라인 진로상담전문가, 외부의 진로상담전문가 등이 찾아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후속 상담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있음(13개 교육청, 33개 중·고교).
- 이외에도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이트(여러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이 멘토링 수업을 운영, <https://mentoring.career.go.kr/school/>), 커리어 넷(매달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선정하여 관련 직업멘토가 질의응답 및 진로 상담을 진행)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진로멘토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멘토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별 진로멘토단 운영확대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음. 따라서 부분이행으로 판단됨.

2-1-2. 온라인 멘토링 강화

제안배경

- 개인의 특성 및 차이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멘토링 시스템의 한계점
 -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적 만족을 제공해야하며, 특히 오프라인 멘토링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멘토링'이 이에 적합함
- 사람들의 낮은 '온라인 멘토링' 활용도
- 제한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멘토-멘티 간의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 영상 진로 멘토'의 활용이 미미함(통계청, 2016)

학교 진로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별	201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프로그램	63.3	74.2	68.3
커리어넷	86.2	95.2	92.0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35.2	58.7	40.8
진로선택기 진로상담 종합 지원체제	44.7	60.9	55.8

정책과제

-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 '커리어 넷', '워크넷'의 온라인 멘토링 기능 강화
 - 상담내용의 전문성 강화 및 1대1 원격 상담 시스템, 오프라인 상담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의 실효성 강화 및 활성화, 다양한 방식의 홍보 진행
 - 온라인 상담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멘토에게 인센티브 부여

모니터링결과

-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진로멘토링 활성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분이행>
 - 2018년 진로 관련 온라인 사이트 현황

구분	내용
커리어 넷	-개인상담: 진로 고민을 개인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상담 전문가가 답변(비공개 상담 도입 등)
	-또래상담(친구야 도와줘) : 매월 진로고민 사례를 정하여 비슷한 진로고민을 가진 또래 친구들의 의견을 응모하고 우수 답변을 선정하여 게시
워크넷	-진로솔루션(전문가 직업상담) : 월별로 특정 직업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고 궁금증과 진로고민을 접수취합하여 전문가의 종합적인 답변 제공
	-심리학, 상담학 등을 전공한 진로상담전문가와 커리어넷 진로상담 위원으로 활동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상담 답변 진행 -진로인터뷰(직업 관련 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취업·진로길라잡이 : 대상별 탭(청소년, 청년, 중장년, 여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자기이해 (진로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음 -진로 관련 내용보다 취업, 기업 설명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음 (채용공고 등)

- 현재 온라인 진로상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 개개인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1대1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오프라인 유관기관 연계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체적인 모니터링 결과는 부분이행으로 판단됨.

-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 내실화 <고용노동부, 교육부, 부분이행>

- 교육부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이트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들에게 온라인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음. 커리어넷 하단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으로 갈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해 접근성도 뛰어난 편임. 워크넷에도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개설 되어있음(개인상담, 진로솔루션 등)
- ‘직업적성’, ‘진로적성’ 등 다소 광범위한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더라도, 관련 검색어에서 ‘커리어 넷’, ‘워크넷’ 등의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진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진로검사, 관련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임.
- 커리어 넷에서는 진로 진학 및 고민 상담에 대한 답변 중 우수답변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센티브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다수 활용하는 유니헬프, 공블러 등 사기업 멘토링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멘토단 활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2-2. 소수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2-2-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

제안배경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의 중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대안교육 위탁기관, 청소년쉼터 간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함
- 학업 중단을 했거나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함
 - 꿈드림센터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낮고 상담인원 부족 등의 내부적인 문제 발생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센터 규모에 비해 그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
 - 학업 중단 시 주요 상담 내용은 진로상담이(48.3%) 가장 높았으나, 학업형(해밀 프로그램), 직업형(두드림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은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청소년이 원하는 유형의 지원 기관이 없음 (2015년 관계 부처 합동 발표 자료)

정책과제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 학업중단속려제(dropcess) 운영 효율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다양화
-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꿈드림센터 내에 전문가 배치 및 지속관리를 통한 진로정보제공 기능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 학교와 꿈드림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간의 연계 확대(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모니터링결과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 정보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 여성가족부는 내일이룸학교(직업교육), 꿈드림 멘토단,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학업 중단숙려제 운영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상담 강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책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 내일이룸학교 : ('17) 9개 기관, 9개 과정 → ('18) 16개 기관, 17개 과정

* 꿈드림 이용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 현황(2~4년제 대학) : ('16) 398명 → ('17) 379명 → ('18) 6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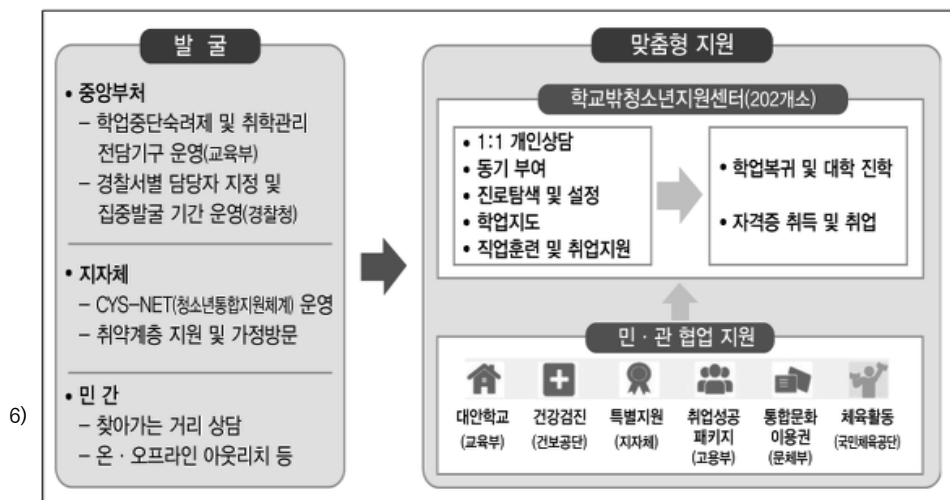
• 꿈드림센터 내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여성가족부, 부분이행>

- 2018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세부과제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에 따르면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학업, 진로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인터넷 조사 결과 지역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후 전국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될 필요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행>

-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2017년 말 관계부처(교육청, 경찰서)와 온라인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즉시 신속하게 해당 청소년의 정보가 지원센터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참여 제도화 등 협업 강화를 지원함.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체계 >



6) 여성가족부 정책뉴스,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한 3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2018.05.

2-2-2. 탈북 및 장애 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제안배경

- 탈북청소년의 수는 점점 증가하지만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2016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전체 수는 1,266명으로 2014년 1,11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탈북청소년의 진로교육은 탈북청소년의 탈북배경 및 특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유형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이 필요함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개교씩, 총 30개교가 지정되었음.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실 수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현황을 알수 있는 자료는 2012년 이후 수정되고 있지 않음. 또한 각 학교 별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어려움

정책과제

-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캠프 및 박람회 운영 확대
 - 탈북청소년 학교진로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하나센터 내 탈북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역별 균등화(각 시·도별 2개교 이상 설치)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네트워크 정보 주기적 갱신
(거점학교 전국 현황 및 각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결과

•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확대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행>

- 통일부: 탈북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년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및 상담주간 운영(적성 및 직업선택 상담부스 등)

<2018년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및 상담주간 개최 보도자료>

 남북하나재단 Korea Hana Foundation		보 도 자 료		 한글만드는 작은 통일	
사업담당	교육개발부 이아름 대리 02-3215-5853	배포일자	2018. 6. 20		
홍보담당	대외협력부 김미주 사원 02-3215-5731	보도시점	즉시 (총 4쪽)		

2018년도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및 상담주간 개최

- 남북하나재단(이사장 고경빈)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2018년도 탈북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및 상담주간'을 개최한다.
 - 진로진학 박람회 : 6.25(월) 13:00~17:00,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
 - 진로진학 상담주간 : 6.26(화)~27(수) 14:00~17:00, 남북하나재단 대강당
- 본 행사에서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에 대한 안내, 탈북학생이 주로 진학하는 학과별 학업 및 진로·직업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입시상담 및 안내부스에서는 일반학교, 대안학교의 진로상담교사가 탈북학생 및 제3국 출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1일(일)부터 진행되는 '2019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한다.
 - 또한 학과별 상담부스에서는 탈북청소년이 많이 진학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각 전공별 대학생 선배들과 진로상담교사의 학과탐색과 관련된 구체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특히, 대학생활을 먼저 경험하고 있는 탈북대학생 선배들이 참여하여 학과 선택, 학습 준비 등 1:1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재단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참가신청 없이 누구나 즉석에서 참여 할 수 있다. /끝/

-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별칭 '무지개청소년센터')을 통해 진로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포함)을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 진로캠프 실시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기관	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맞춤형 정보서비스
	• 입국초기 지원교육 Rainbow School
	• 진로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Job아라!
	• 통합상담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다톡다톡(多talk茶talk)

- 교육부

- ☞ 진로멘토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확대('17년 60교→'18년 80교)
- ☞ 재북교사 출신의 탈북민을 탈북학생 밀집학교(초·중)에 배치하여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 및 맞춤형 교육 실시('17년 22명 → '18년 23명)
- ☞ 탈북학생의 한국 입국초기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를 파견하여 정착기 학교 적응 및 편입학 준비, 진로·진학 상담 등 지원

- 각 부처별로 탈북청소년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책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탈북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임.

모니터링결과

•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 확장 <교육부, 이행>

- 교육부는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을 설치·운영할 계획임.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48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내용들을 보았을 때, 지역별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 및 양질의 체험차·프로그램 확충 등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탐색의 장을 확장하고 있음.

3

교육

3-1. 학교 내 진로교육 제도 개선

3-1-1.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제안배경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이 미흡함.
 - 충북도내 중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 시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음 학년 시험에 대한 부담감, 진로와 관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 체험시설 부족, 한정적인 프로그램 등의 답변이 나왔음.
 - 자유학기제가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들의 꿈과 관련된 활동, 자유로운 활동, 진로와 관련된 체험과 활동,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 등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진로체험을 원하였음.

정책과제

-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 자유학기제 진행 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청소년의 욕구 파악 및 교육청, 공·사기업과의 연계추진
 - 체험기관 방문 시 청소년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현재 중학교 1학기에 한정되어 있는 자유학기제 기간을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로 확대
 -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시범 요일을 지정하여 자유학기제 사전 교육 및 진로, 체험활동을 진행

모니터링결과

- 자유학기제 체험기관 및 터전 확충 <교육부, 이행>
 - 교육부는 체계적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위해 진로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임.

<교육부 진로 관련 사업>

구 분	내 용
진로 체험버스	농산어촌, 구도심 등 체험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멘토 또는 체험버스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체험처로 찾아오는 형태로 운영(중앙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대학 등)

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전국 17개 사도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민관연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유형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견학, 강연, 캠프, 박람회 등)
창업체험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경기 성남시) 및 권역별 10개 지역 창업체험센터에서 초·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창업체험교육 운영
꿈길 (자유학기제관련 홈페이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관리, 체험처·학교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 출처: 교육부 꿈길(<http://www.ggoomgil.go.kr/>) 홈페이지 참고

〈진로교육 현황조사 관련기사: 조선에듀(2018.6.11.)〉

교육청·교육부
소식

올해 진로교육 현황조사, 학교 밖 진로활동도 파악한다

오피움 조선에듀 기자

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2018.06.11 12:00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만 8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전국 12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일(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문항은 진로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인식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문항이 신설됐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등 학교 밖 진로활동 참여 여부와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신설된 도전(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 활동 참여 현황을 묻는 문항도 일부 보완됐다.

모니터링결과

• 자유학기제 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부, 이행>

- 존 자유학기제(1학기) 운영에서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2학기 이상, 시범학교 운영)로 자유학기제 기간을 확대하고, 일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교 또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관련 보도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9. 19.(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9. 18.(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9. 18.(화)	대변인실	044-203-6572
담 당 과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담당과장	이홍열 (044-203-6776)
		담 당 자	연구사 서지영 (044-203-6340)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 올해 2학기부터.. 자유학년제는 48교도 확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 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교→48교)** 한다고 밝혔다.
- 이는, '16-'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대·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7)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	
◇ (학생) 학생 참여형 수업 및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에 긍정적 변화 선도	
◇ (학부모)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단 활동 및 학교 프로그램 참여 증가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감 및 만족도 향상	
◇ (교사) 자발적인 교실 수업 개선 노력으로 수업 효능감 향상	
◇ (지역사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특수학교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의 계기	

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학기) ①·② (생 략)	제44조(학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_____ - 학기 또는 두 학기를 _____ _____ _____.

7) 교육부 조간보도자료,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018.09.19.(수)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3항 개정 관련 <신설 2015. 9. 15., 2017. 11. 28.>

3-1-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인프라 확대

제안배경

-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요구
 -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직업체험은 5점 만점에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과 및 학교건강(4.05점), 진로 및 경제캠프(4.04점)이었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활동에 참여하여 높은 진로역량을 지니고자 함

정책과제

-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시 격월로 ‘문화의 날’ 또는 ‘청소년 문화제’, ‘진로의 날’을 확대 운영
 - 시·도내 대학의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행사진행 기간 동안 여러 예체능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진로활동과 관련된 연극 및 공연, 전시회, 진로체험 등을 정기적으로 교내 청소년 운영위원과 진행
-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 현재 기관과 사이트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봉사관련 정보를 추합한 전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 어플리케이션 내 청소년들의 관심, 흥미, 희망직업계열, 지역 등의 구분에 따라 봉사 질의응답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의견 반영

모니터링결과

-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 연계강화 <교육부, 부분이행>
 -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한 진로의 날 확대운영, 진로활동 청소년 운영위원 진행 등은 조사 결과 확인하기 어려웠음. 하지만 교육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진로체험버스, 직업맞춤형 진로체험, 스타트업 캠퍼스 진로체험, 스마트 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분이행으로 판단함.
- 학생자원봉사 전문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이행>
 -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 Dovol은 보건복지부 VMS와 행정안전부 1365를 통해 교육부 NEIS와 실적이 연계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조회, 신청 등이 e-청소년 앱을 통해 가능함(2017년 소관부처 검토의견)
 - 봉사관련 정보가 모두 연동되는 전문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년도 검토의견 및 현재 개발되어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정책과제 이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자원봉사 관련 앱 현황

구 분	내 용
1365포털	-보육·환경·교육 등 다양한 자원봉사 모집정보를 제공 -청소년 봉사활동 확인서가 1365포털을 통해 소속 학교로 자동 제출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e-청소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안전한 프로그램 소개 및 활동 신청 가능
안전신문고	-한시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전신고에 대해 봉사시간이 인정

3-1-3. 교내 진로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제안배경

-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이 자아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허철수, 강옥련 수정인용)
- 동아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원 부족(29%), 동아리실 부재(28%), 연습시간 부족(25%), 동아리 내 다툼(10%), 성적 및 학교와의 마찰(8%) 순으로 나타남.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 및 동아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정책과제

-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 교내 동아리 예산 지원 확대
 - 교내 빈 교실을 수요에 따라 휴일에도 개방하여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 다양한 동아리 체험기회 및 활동 계획서 작성, 동아리 결과 발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 시간 확대 및 전문교사 배치**
 - 교내 동아리 시간 확대(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전문가 등 외부기관과의 전문 인력 연계 활성화
 - 전문교사 배치에 대한 운영 지원(강사 수업 운영계획서 작성 및 수업 지원금 확대, 학교 별 진로전문교사 배치 확인 등)

모니터링결과

-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확대 <교육부, 부분이행>**
 -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운영됨.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선면담 결과 8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의 예산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별 증액 예산은 상이함
 - ☞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나, 8개 시·도에서 교내 동아리 운영지원 예산이 확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부분이행으로 판단됨
- **교내 정규동아리 활동 시간 확대 및 전문 교사 배치 <교육부, 불수용>**

3-2. 학교 내 진로교육프로그램 강화

3-2-1. 진로교사 전문성 제고 및 ‘진로와 직업’ 교과 내실화

제안배경

- 진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사가 아닌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도울 수 있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종별 교사의 필요성
 - 진로전담교사 한명이 한 달 동안 상담하는 학생의 수가 27.9명으로 과다함. 또한 학생들의 선호 직업의 수에 비해 진로교사는 ‘진로교육법 제 4조’에 의한 학교별 1명 이상만 배치되어 있어, 포괄적인 지식은 있지만 직종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구성에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 중학교 진로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를 체험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명이 찬성을 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업 및 이수해야 할 교수시수로 인한 시간적·물리적 여건 미흡,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필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정확성 증대 등의 의견이 나왔음
(2017. 7. 5. 부산지역 진로교사 네트워크 회의.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책과제

- **진로진학 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모든 중, 고등학교 내 학년 별 진로 전문교사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
 -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 운영**
 - “진로체험의 날(가제)”을 학교마다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 진로체험의 날 지원 대학생 인원 배치 및 참여인원 인센티브 부여
 - 교육청 산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용을 통한 진로체험의 날 내실화

모니터링결과

- **진로진학 상담교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교육부, 부분이행>**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유선면담 결과 인력 확충 부분은 시·도 교육청 소관이고, 교원 정원의 이유로 교육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진로상담 연계 역량강화 연수’를 하반기에 신설함(약 2,000명 대상).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소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관련 연수를 운영하고 있음.

※ 2018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안)

Ⅲ-2 교원의 진로교육역량 강화 및 지원 中

-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중심 학교경영역량 강화 연수
-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 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 초·중등학교 담임교사 진로역량 강화 연수
- 학교유형별 맞춤형 진로코칭 연수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교내 체험형 프로그램 체계화 및 확대 운영 <교육부, 불수용>

3-2-2. 진로 관련 컨설팅 및 체험의 장 확대

제안배경

- 청소년들의 진로 정보 제공의 기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SNS 및 인터넷에 비전문적인 정보가 많음

정책과제

-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를 각 시도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 및 지원
 - ‘찾아가는 진로 박람회’의 시행 횟수를 예산 및 시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연 6회 내지 7회로 고정
 - 박람회 내 진로 전문가 초청 및 학생 참여형 강연 강화, 1:1 진로 및 진학컨설팅 제공
-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 ‘찾아가는 진로전문가단’을 구축하여 매년 1회 이상 교내에서 분야별로 컨설팅을 진행
 - 17개 시,도 내 중,고등학교를 나누어 시범학교를 지정 및 1차 시행 후에 해당되는 교내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피드백 실시. 차후 전국 확대

모니터링결과

-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활성화 <교육부, 불수용>
- 분야별 진로 컨설팅 전문화 및 체계화 <교육부, 불수용>

3-3.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구축

3-3-1. 초·중기 청소년 진로교육 기반 구축

제안배경

- 학생설문 결과 ‘진로 계획과 진로 준비의 중요성’ 문항에 전체 학생의 89.2%가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를 선택 함. 이를 통해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을 체계화 하는 것이 요구됨. (2012 학교 진로교육 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많은 학생들이 ‘진로 계획과 진로 준비’를 중요시하는 반면 교내 진로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 진로관련 수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기초통계표 - 진로교육센터의 운영사업)

정책과제

-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Ex)

구 분	내 용
14세	진로교사 → 학생들 진로 교육
15세	자아정체성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다양한 직업인 초청(한 달에 한 번)
16세	고입 진로상담(고등학교 자세히 설명)
17세	고등학교 적응상담/W-class 학업중단 상담
18세	학과상담/출신학교 멘토-멘티 강의
19세	맞춤형 대입 및 진로 상담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 확대

-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을 실시
-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율 확대

모니터링결과

- 초·중기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 <교육부, 이행>

- 교육부(진로교육정책과) 유선면담 결과, 현재 진로체험교육과정은 교과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교과연계 교수·학습 프로그램 자료를 개발 및 보급 중임(초·중·고등학교). 이외에도 진로체험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여 온라인 진로 정보망인 커리어 넷을 통해 배포하고 있음.
- 또한 교육부는 전체 학교의 진로체험교육 커리큘럼 체계화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선도학교(10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중심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교사연구회(40개)도 추가적으로 운영 중임.

〈집중학년·학기제 교사연구회 연구 주제(안)〉

연구 주제(안)	주요 추진 방향(안)
진로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편성·운영과 관련된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지원 - 진로전환기의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협력모델 개발 등
9) 진로상담·진로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 기반 진로상담 ※ 진로정보망 회원통합('18.4)에 따른 활용 방법 등 - 진로개발역량지표에 기초한 진로설계 및 진로체험 지원 - 역할극(연극) 기반 진로 찾기 - 면대면 개인·집단 상담, 온라인 상담, 또래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한 진로상담 모형 - 학생 유형별(다문화, 탈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진로상담 모델 개발 등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불수용〉

3-3-2. 후기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제안배경

- 기존 후기청소년 관련 제도 내에서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함
- 단순한 직업체험 기회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질 좋은 콘텐츠가 미비함
- 직무미스매치로 인해 기업을 떠나는 후기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자신과 맞는 직무를 찾는 것이 중요함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국제성인능력측정 프로젝트 (PIAAC)보고서-한국산업인력공단>

정책과제

-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체험형 인턴제도를 도입
 - 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율을 높임
-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 기존의 휴학제도를 개편하여 1년 단위의 갭이어(gap year) 휴학을 시행 및 교육부 고시 제정 및 발표

모니터링결과

- **후기 청소년 대상 체험형 인턴제도 활성화 <교육부, 고용노동부, 부분이행>**
 - (교육부) 대학교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내에 편성하여 취업과 전공 연계를 실시할 예정임(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선, 현장실습지원비의 지급기준 개선, 현장실습운영계획서 및 협약에 대한 표준서식 도입 등)
 - (고용노동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재학생 직무체험을 운영 중임. 또한 모니터링 결과 체험형 인턴제도의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 하지만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학 갭이어(gap year) 정책 제정 및 운영 <교육부, 미이행>**
 - 현재 갭이어를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 제주 등 일부에 불과함. 교육부는 2017 업무계획을 통해 10)(가칭)열린학기제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교육부 2018 업무계획 등에서 보다 진전된 추진현황을 찾기는 어려움.

10) 일정기간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으로 인정하여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예:영국 Gap Year)

2018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인 쇄 2018년 12월

발 행 2018년 12월

발 행 인 이광호

발 행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37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Tel. 02-330-2800 Fax. 02-6430-0927 www.kywa.or.kr

발간등록관리번호 KWYA-2018-144-10

인 쇄 처 디자인인
